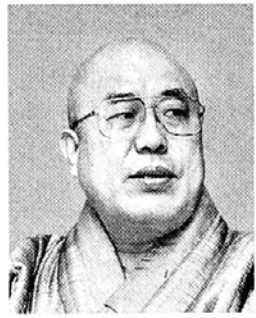


# “김포학사 건립불사에 최선”

## 인터뷰 중앙승가대 새 총장 현성스님



8일 중앙승가대 새 총장에 선임된 현성스님은 “종단이 어긋난 때에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가기 위한 교육과 수행의 도량으로서 중앙승가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승가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최근 공사중단으로 상반기 내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승가대 김포학사 건립문제와 관련 “이사회에서 지적된 바 대로 완공까지의 건립기금 조달과 완공 이후의 운영비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총무원장이자 이사장인 고산스님과 함께 종단 최대의 불사인 김포학사 건립 문제해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종단사태에 승가대의 일부 학인들이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인들이 종단문제

연루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강화된 교육과 수행 프로그램을 도입해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거듭되고 있는 정원미달사태 문제도 대방망이는 교

수들을 초빙하고, 여러 동문 선배스님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우수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학풍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스님은 64년 선학원에서 청담 김포학사 건립문제와 관련 “이사회에서 지적된 바 대로 완공까지의 건립기금 조달과 완공 이후의 운영비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총무원장이자 이사장인 고산스님과 함께 종단 최대의 불사인 김포학사 건립 문제해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종단사태에 승가대의 일부 학인들이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인들이 종단문제

를 초빙하고, 여러 동문 선배스님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우수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학풍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스님은 64년 선학원에서 청담 김포학사 건립문제와 관련 “이사회에서 지적된 바 대로 완공까지의 건립기금 조달과 완공 이후의 운영비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총무원장이자 이사장인 고산스님과 함께 종단 최대의 불사인 김포학사 건립 문제해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종단사태에 승가대의 일부 학인들이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인들이 종단문제

‘시간’이라는 책이 최근 번역 출간됐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시간의 생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칼하인츠 A. 가이슬러(55)교수가 쓴 책이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시간관리를 잘하지” 현대인들은 시간의 덧없어 걸린듯 슬기롭게 살고 있다. 설 연휴에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기를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속의 말들을 간추려 본다.

사람들은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바쁘다’고 ‘나는 존재한다’를 ‘나는 머무른다’고 ‘나는 존재한다’로 바꾸자.

현대생활의 분주함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명령한 시간체임이다. 우리는 시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정정은 빠르고 파괴적이다. 평화는 느리다. 인간의 문화가 노동과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것임을 잊지말자. 사람은 느림에서 느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속도는 사랑을 희박하게 한다.

느림이 우정을 발명했다. 빠름에는 친구가 필요치 않다. 교통수단이 필요할 뿐이다. 가속은 시간의 사회적

공허함이다.

긴급성과 긴호흡이 있어야만 숨이 가빠지지 않는다. 노동이란 휴식, 시작과 끝이 있음으로 아름다워진다. 서두르지 마라. 가속에 치이지 말라.

일상적인 압박, 끝없는 분주함, 몹시 지치게하는 시간부족, 이런 것들이 총족과 완성을 방해한다.

현대화된 사회는 시간관리자의 사회다. 시간관리는 바로 자기통제를 위한 갈등이다. 지속적 시간관리자는 궁지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이 된다.

‘빨리 빨리’ 사회에서 사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거리를 상실한다. 성급함은 참을성없는 기다림의 생명력을 고갈시킨다. 기다림이란 행동의 포기가 아니라 창조적인 행동이다. 휴식은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

느스름 사회는 끝을 ‘아직 배재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한다.

“걸어라 그래야만 자신의 주인이 된다” 티베트로 인간은 ‘걸는 사람’이 제 걸어보자. 과태의 시를 읊으며, “술에서 혼자 그렇게 걸었다. 아무것도 찾지 않으면서 그것이 내 의도였다.”



### 목어

### 시간

# 교육-수행-전법 체계 구축

## 조계종을 종무계획 어떤내용 담겼나

10일 발표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계획은 지난해 종단분규의 상처를 치유하고 종단을 화합시키는데 상당한 힘을 실고 있다. 종단의 안정 속에서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 기조다.

무엇보다 새 집행부 출범 한 달 후에 발표된 종무계획은 종단 분규에서 돌출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극복의지와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종단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어 상당한 기대를 모고 있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금년 한해동안 전개할 각종 사업들의 추진 일정을 발표한 것도 달라진 조계종의 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발표된 일정표는 자칭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월말까지로 책정된 종무일정들 가운데는 아직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어 이 같은 우려를 사고 있다.

얼굴을 가꾸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이 여론이다.

■종단 안정과 화합  
조계종은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에 상당한 무게를 실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사주지회의를 정례화하고 교구총회의 활성화를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단의 중진스님들을 주체로 하는 종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열린 종무행정 실현을 위한 종단적 의지의 결집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는 부분이다.

■수행중심의 승가상 확립



조계종 종무위원장 고산스님은 10일 종단종무계획을 발표했다.

## 종책자문위 구성...초발심 회복운동도 불교종합회관 건립등 추진일정 밝혀

종단분규의 상처를 빠른 시일 안에 치유하고 승단의 교육개혁과 의식개혁을 통한 수행중심의 승가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범종단 초발심 회복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월 25일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4월1일) 동안의 기간을 참회와 자정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10월까지의 정국을 순회하며 법회를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10월에는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승가종합복지대력을 세우고 교육 수행 생활 전법의 전일 체계를 구축하며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기관을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포교전법사업의 내실화  
종단의 포교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조계종은 신도조직과 신령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신도회를 정상화하고 사찰신도회 및 신도연합단체 활성화 유도, 신도교육체계 정립 및 신령체계화를 먼저 끝

다. 산하 신도조직의 정비와 활성화 연합체 운영 등을 통한 포교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의지다. 또 포교인력을 양성하고 전법도량 지정, 전국순회법회등 그간 전개돼 온 사업들도 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포교와 문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해 기존의 불자 관리와 새 불자 만들기의 효과를 함께 거둔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대사의 활동의 다각화 전문화  
시민의 결로 다가가는 불교상을 세워 사회에 대한 종교적 순기능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기조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불교시민사회운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새로운 복지 형태 구축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북불교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한불교 현황을 파악할 계획.

■종도 중심의 서비스 행정의 실현  
관리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은 고산스님 취임

이후 종공 강조해 온 대목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산화조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단문장을 개발하고 직영 직할 사찰의 관리를 강화해 보다 투명한 운영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종단 관련 법인대책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혀 선학원 등 법인관련 현안도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종무행정 전산화 및 불교종합정보망  
이미 3년전부터 추진해 온 행정 전산화와 종합정보망 구축에 업무력을 집중시켜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종무기관의 종무행정 전산화와 사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적 성과를 드러낼 계획이다. (본지 210호 1면참조)

■불교종합회관 건립불사  
한국불교의 얼굴로 인식되어 있는 조계사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정결과 현대성이 조화된 불교종합회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종합회관 건축 공모도 할 방침이다. 조계사를 도심포교의 모방지역과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가꾼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지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의지 표현

### 조계종 ‘정화회의 해산’ 성명서 배경 해종행위자 처벌-소송 조기매듭 수순 의견 들로 갈린 ‘통도사 문제’ 해결도

매듭과 통도사를 종단에서 더 이상 소외시킬 수 없다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원이 총무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외에도 아직 정화회의가 제기한 소송은 4건 이상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총무원측은 이들 재판에 대해서도 승소가 자명하다고 보고 있지만 법적인 시비를 고리로 정화회의가 계속 활동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는 법적 문제가 계속됨으로 종단분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각을 일소시키기 위한 의지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도사가 월하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정화회의의 고수 세력과 총무원에 협력해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세력으로 양분되고 있다는 판단도 이번 성명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고산스님 취임 이후 통도사는 월하스님과 부방장 청하스님의 총무원지지 세력간 갈등이 적지 않게 표출

돼 왔다. 이같은 갈등 구조 속에서 청하스님의 부방장 사임문까지 대두돼 왔던 게 사실이다.

소송 취하와 정화회의 해산을 요구한 성명서와 결의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도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해종행위 조사와 강도를 높이고 각종 종무행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이 회자되고 있다.

총무원과 분사주지회의의 성명 및 결의문은 정화개혁회의에 대한 ‘최후통첩’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최후통첩에 대해 정화개혁회의가 12일 밝힌대로 개의치 않을 경우 총무원은 곧바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향후 행보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연태 기자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99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잡아합경	최봉수(동국대)	부처님이 설파한 진리의 원음의 보고 잡아합경
화요일	능엄경(7,8권)	송찬우(승가대)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정화인 능엄경(7,8권)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종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등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불교고급대학(2년) 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영합판사진 3장 ④불교고급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9년 2월 1일~ 99년 3월 6(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30명)	④포교사 취득자			

3. 개강일시 : 1999년 3월 8일(월)·9일(화) 오후 7시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 본 연구원 사무국(종로구 견지동 13번지) 교부·접수 ☎ 732-1206~8,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 2회(매년 2월, 8월)

1. 교과목

1학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반야사상·법화사상·불교사회복지론·화엄사상
2학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불교미술·일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2. 정규반, 통신반 개설

3. 문의처 : ☎732-1206~8/FAX 732-1207

4. 특전사항 :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1999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9년 3월 6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문준준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법물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전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영합판사진 3장	99년 2월 6일(토)~ 3월 5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00~3:00 (동산법당)

3. 입학금 : 일십만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 본교육원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100-170)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